

지적 전쟁터서 살아남는 법은? 시대를 읽는 발상의 전환 필요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

이어령·정형모 지음

10여 년 전 무렵이었다. 한국의 석학 이어령 교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 '디지털로그'라는 조어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디지털의 약점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보완하는 '디지털로그'는 이후 한국의 지식 정보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당시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던 디지털 그 세상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거대하게 펼쳐졌다. 누구나 사이버공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1인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신 무기로 무장한 그 어떤 정보보다 치열한 지식 정보 전쟁이 벌어진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가 무너진 인터넷의 혁명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문화잡지 '매거진' 정형모 기

자가 펴낸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은 지적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지금'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들은 사물이 디지털화되고, 그것이 다시 사물화되는 하이퍼텍스트의 세계를 살아가는 시대에 과연 무엇을 추구 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이어령 교수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식의 전쟁터에서 단순히 신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박제되어 버린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신지식을 보여준다.

그는 정해진 답을 답습하는 것보다 지식의 사이를 결합하고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지혜의 눈을 일깨운다. 결합점을 찾고, 접속점을 추적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침몰하는 자본주의와 글로벌 지식의 싸움터에서 이어령 교수는 지식의 뗏목을 타고 항해한다. 그는 "서재에 있는 책들 거의 모두가 사체 안치소의 관과 닮아 없다"고 말한다.

그보다는 "실시간 전투가 벌어지는 인터넷 공간이 최전선"이라고 본다. 이 교수는 초월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서재에서 지식의 결합점을 찾고 접속점을 추적한다. 그 힘은 바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Thinking이다.

〈아르테·1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밀란 쿤데라·서태지...음악에 초점 맞춘 독서 일기



장정일의 악서총람

장정일 지음

열혈팬이 됐다. "마침내, 당신(신디 로퍼)의 전기가 나왔군요"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음악과 사회에 대한 에세이면서 음악 마니아의 내밀한 일기다.

책에는 서태지, 레드 제플린, 커트 코베인, 임방울 등 국내외 대중가수를 다룬 책 이야기와 펼쳐지고 헤르만 헤세와 밀란 쿤데라, 오에 겐자부로 등 문학가의 소설이 음악을 매개로 어우러지기도 한다. 나치의 음악 선전, 인종 차별과 재즈 음악의 연관 등 음악과 사회, 음악과 권력의 맥락을 짚어내는 글도 수록됐다.

클래식 애호가들이 바흐를 좋아하는 이유는 '몰리지 않기' 때문이고 '독립적인 성부나 주제 또는 악기들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그의 신기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바흐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은 그의 만만치 않은 내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책세상·1만7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너희가 재즈를 아느냐' 등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장정일은 고전 음악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음악마니아다. '장정일의 독서일기', '빌런 책 산 책 버린책' 등 서평집을 꾸준히 펴낸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에 관한 공력을 바탕으로 독서일기를 펴냈다. 제목 그대로 음악전문서와 음악가 전기, 비평집, 소설과 시나리오 등 174권의 악서(樂書)를 읽고 쓴 서평집이다.

우선 책의 첫장을 펼치면 '이 책을 신디 로퍼에게 바친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1987년 파리 제니트 극장 라이브에서 신디 로퍼와 조우한 그는 이후 그녀의

교육·인술 한평생...약자와 동행한 '참의사'

전라도 의사 김용일

김용일 지음



자서전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른 이야기이다. 형식이나 분량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수필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성찰을 한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자서전의 출현은 18세기로 본다. 서양에서 글을 쓰는 이의 정체성과 결부돼,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 존재에 대한 성찰이 개인주의와 맞물려 하나의 형식으로 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자서전을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이를 책으로 기록하려는 것이다. "살아온 얘기를 글로 쓰면 죽어 몇 권의 책이 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에 남편의 삶을 부인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자서전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구술을 바탕으로 쓰인 책은 그 자체로 이색적이다. '황혼의 부장부수(夫唱婦隨)'라는 말은 이에서 나온 듯하다.

주인공은 소아과 전문의이자 전남여자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김용일 박사와 남편 김용일 의학박사(83). 부인 김용일 박사가 남편의 구술을 토대로 엮은 '전라도 의사 김용일'은 의사 김용일의 지나온 삶을 오롯이 담고 있다.



김용일 박사의 학창시절 모습.



광주기독병원에서 송별예배를 마친 후 직원들과 함께.

'궁정과 낙천의 삶 80년'이라는 부제는 일평생이 감사와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만큼의 역경과 고난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 박사의 일대기는 일제 강점기, 8·15광복, 6·25한국전쟁, 4·19, 그리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 집국의 근현대사와 일치한다.

책의 주인공 김용일 의학박사는 함평 출신으로 광주기독병원 원장서리와 대한마취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광주 YMCA 22대 회장과 조선대 부속병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학교법인 송파학원(장성고) 이사를 20여 년 넘게 맡아오고 있으며 광주 서림교회 장로가 된 이후로는 교도소 교화위원, 검찰청 선도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화려한 이력과 달리, 주인공 김 박사의 인생 항로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유년시절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면서 겪었던 어려움, 전년대 의대 합격이 취소될 뻔 했던 일화, 더 위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났던 일, 만 36세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결혼 등, 매 순간마다 시련과 위기가 적지 않

았다. 그 가운데서 김 박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내를 만난 것을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마취과 전문의(당시에는 마취과 인기가 높지 않았다) 자격 취득과 삶의 전환점이 된 기독병원 원장을 맡기까지 그는 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스승들의 가르침은 삶의 지표가 되었다.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과 기부는 그의 삶의 모토가 되었다.

강희열 교수의 첫 강의 때 받은 감동은 생생하다.

"너희들은 앞으로 의사가 될 것인데 의사가 되어서 돈만 생각하고 그들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빈 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옷을 한 벌씩 입고 가지 마라. 남은 인생이니까 너희들이 의사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김 박사는 의사가 된 이후 적잖은 기부와 장학금을 쾌척한다.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고 농어촌병원 건립 등에 힘을 보탰다. 다양한 봉사활동 이면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이 자리한다. 그의 마음에는 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

면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라는 성경의 말씀이 자리한다.

한편 책에는 오랜 친구, 지인, 동료의 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김 박사의 자서전이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이들의 인생사로 확장되는 이유다. 또한 책을 읽다 보면 광주전남 의료사와 함께 그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려 애썼던 인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 2010년에는 아내와 함께 전남대 의대에 사후 시제 기부까지 약정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자신을 있게 하고 선히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다.

"내놓을 것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을 그래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다. 그 동안 내가 받은 사랑도 무척이나 큰데 더욱 빛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감동이라도 주 어 그 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커다란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형상·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

정치 불신 위기, 정당은 국민과 소통해야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윤종빈의 지음

20대 총선이 100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비롯한 정치, 사회, 외교 분야의 학자들이 펴낸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는 한국 정치의 위기, 그 극복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분열된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주체가 돼 국민과 소통하고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 불신으로 인한 정치 참여 회피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주)푸른길·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6080'이 '3050'에게 제안하는 '인생 2막'



활짝 핀 꽃에서 멈추다

박윤희 지음

우리시대 6080세대들이 앞으로를 살아갈 3050 세대들에게 제안하는 행복한 인생 2막 휴먼스토리 '활짝 핀 꽃에서 멈추다'가 출간됐다.

협성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서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의미화 연구를 하고 있는 저자 박윤희는 노인복지를 공부하며 자신의 인생 2막에 대한 롤 모델을 찾아 나서면서 50여명의 행복해 그녀들을 만났다. 그리고 '오래된 그녀들'과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에 대한 인터뷰를 엮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낸 행복한 그녀들의 진솔한 인생을 통해 우리 시대 여성의 롤 모델을 새롭게 접목하고자 했다. <현자의마음·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박사, 학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시범,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상,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연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여성</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63) 275-7766